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나와있는데 사실 왜 질투하시는 하나님인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질투하면 또 하나 생각나는 단어가 시기입니다. 왜 하나님은 시기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질투하는 하나님일까요? 시기와 질투의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시기와 질투 이 두 단어는 비슷한 것 같지만 그 차이는 동기에 있습니다. 시기는 남이 가진 것에 대한 악의적인 감정을 말합니다. 시기란 시기할 '시' 꺼릴 '기'로서 남이 가진 행복이나 성공, 재산이나 명성에 대하여 악의적인 부러움과 더불어 반감과 그리고 악의적인 감정이 시기의 모습입니다.

창 26:14에 보면 이삭의 성공과 풍성을 시기하는 블레셋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우물들을 막고 흙으로 매우고는 이삭을 내어쫓는 매우 악의적인 일을 했습니다. 이것이 시기의 모습입니다. 또 마 27:18에 보면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물었을 때 그들은 누구를 택하였습니까? 폭동을 일으키며 사람까지 죽인 살인자 바라바를 택하였습니다.

무엇이 예수님을 십자가까지 가게 했습니까? 시기였습니다 (막 15:7-14). 신약에서 시기는 투기라고도 나와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사형에 처하는 벌입니다 (롬 1:29).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죄이기도 합니다 (갈 5:19-21). 시기하는 곳에는 합쳐지는 일이나, 연합하는 일은 없습니다. 시기하면 반드시 망하게 되어있습니다.

반면에 질투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려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내가 사랑하고 있는 상대가 자기 외에 다른 사람에게 눈길을 돌리며 사랑할 때 일어나는 감정이 바로 질투입니다. 나의 사랑, 나의 것을 지키려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보배되는 믿는 백성을 버리지도, 빼앗기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질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한 열심과 사랑이 그 질투 안에 있습니다. 왕상 19:13에 보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묻고 계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고 물으셨을 때 엘리야는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이 특심하오니”라고 대답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사랑이 하나님의 질투 안에 있습니다. 롬 12:11 볼 때 주를 섬기는 일에는 반드시 열심이 있기를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가진 사람중에 ‘비느하스’가 있습니다. 민 2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싯딤에 머물러 있을 때에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에게 붙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이 바알브올에게 부속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물을 ‘부’ 붙을 ‘속’ 이래서 부속이란 찰떡같은 궁합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방신에게 붙게 된 원인은 모압여자들의 유혹으로 시작되었고 음행으로 이어진 결과였던 것을 민 25:1-3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이 때 하나님은 백성의 두령들을 잡아 죽일것을 명하였으나 백성들은 순종하지 않았고 영병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여호와와의 진노는 계속 되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의 자손 중에 한 사람이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천막 안에 들어가 음행을 했습니다. 이 때 아론의 손자인 비느하스가 손에 창을 들고 그 남자와 여자의 배를 꿰뚫어 두 사람을 죽이니 영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다고 민 25:6-9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때 영병으로 죽은 자는 24,000명이나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죽을 때 주위에는 식구는 물론 친구와 친척이 있습니다. 24,000명이 죽었을 때 온 나라가 슬픔과 애통에 잠긴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모압 여자, 미디안 여자의 유혹을 받아 우상을 섬기고 간음으로 불결해졌을 때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질투심을 느꼈고, 가졌고, 행하였던 것입니다.

“그가 그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민 25:13 말씀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잘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육으로 떠나 바알브올에게 붙었던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그 공로로 하나님은 비느하스와 그의 후손에게 의로 정하셨습니다 (시 106:31). 그리고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주셨습니다 (민 25:10-13).

민 25:11 볼 때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복음입니다. 성령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믿음입니다. 소망입니다. 사랑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빼앗길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선하신’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기만 하면!